이상옥 광주YMCA 이사장

"청소년에 꿈 심고 밝은 지역사회 만들 것"

"비전 2020을 통해 청소년에게 꿈을, 지역사회에 밝음을, 지구촌에 평화를 심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9일 광주YMCA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제39대 이사장에 선출된 광주일보 출신의 이상옥(63) ㈜이주가족복지회 이사장은 생명과 평화, 이웃사랑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오는 23일 오후 5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진행된다.

이 이사장은 "90여년의 역사를 가진 광주YMCA는 한국현대사의 중심에 있었고, 그 바탕은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사랑과 격려였다"며 "앞으로 부족한 것은 채우면서 성실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 '광주YMCA 비전 2020' 실현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다. 광주YMCA가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고 생명과 평화의 문화를 창조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젊은이들의 창조적인 시민의식과 지도력 개발 운동 ▲Y의 정체성과 지역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 성숙 운동 ▲공생과 통일의 시대를 지향하는 생명평화운동 ▲지구촌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연대 협력 등이다.

이 이사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강화와 함께 시민사회 내부의 자율성, 민주성, 시민성을 높여,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할 때다"며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작은민주주의운동'과 '생명평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한 가장 큰 힘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시민 여러분의 사랑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고와 조선대를 졸업한 이상옥 이사장은 광주일보 경영본부장을 거쳐, 광주승마협회 회장, 광주시다문화지원협의회 위원장, 광주YMCA 제1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완도군향우회 총연합·郡번영회

김종식 군수에 감사·소망패

전국 완도군향우회 총연합회(회장 김행만)와 완도군번영회(회장 박경남)는 지난 10일 김종식 완도군수에게 감사 · 소망패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민선 3, 4, 5기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어느 지역보다 활기가 넘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지역의 이미지와 가치를 한층 드높여 온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패를 전달했다.

패에는 '2014 국제 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소망하는 뜻도 담았다.

김 군수는 전국에서 가장 매력있는 고장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고 싶은 농수산식품 1위, 장보고 특별기획드라마 '해신' 유치 등으로 500만명 관광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완도항 워터 프런트 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 다도해 일출공원 및 완도타워 건립,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청산도 개발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과분하게 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나도팔 원장 홍조근정 훈장

나도팔 전남도자연환경연수원장이 최근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홍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나 원장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재직시 충북 진천으로 이전이 확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나주로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해왔다.

아이유, 학교폭력예방 홍보대사

경찰이 인기가수 '아이유'를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경찰·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불신감을 해소하고 자연스러운 피해 신고를 유도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홍보활동을 아이유와 함께 벌일 예정이다.

아이유는 이날 위촉식에서 "연예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학교생활을 힘들게 했는데 친구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학생과 학교, 경찰의 연결다리가 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찰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306명을 배치하고 유공 경찰관 40명을 특진시키기로 하는 등 대책을 앞서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팝 디바' 휘트니 휴스턴 사망

미국의 '팝의 여왕' 휘트니 휴스턴이 올해 48세의 일기로 숨졌다.

홍보담당자 크리스틴 포스터는 휴스턴이 11일 오후 3시55분(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에 있는 호텔 베벌리힐튼에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베벌리 힐스 경찰은 "(휴스턴의 사망과 관련해) 타살 등 범죄 흔적은 없다"고 밝히고,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베벌리 힐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호텔 직원들과 응급구조 요원들이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그의 사망소식이 알려진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 등에 동료 팝가수들과 팬들이 올린 추모의 글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미국 리코딩 예술과학아카데미의 닐 포트나우 회장은 성명을 통해 "6차례 그래미상 수상자인 휴스턴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팝가수로 지난 30년간 왕성한 음악적 유산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휴스턴은 지난 9일 할리우드 인근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차림이 흐트러진 채 나타났던 것이 공개적으로 대중들에게 보인 마지막 모습이 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유명 가스펠 가수인 씨씨 휴스턴의 딸로 뉴저지에서 태어난 휴스턴은 1985년 데뷔 이래 '아이 윌 올웨이즈 러브 유(I Will Always Love You)'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1980년대와 90년대 전성기를 누렸다.

그래미상 6회 수상과 누적 음반판매량 1억7천만장 등의 기록을 세웠으며, 7곡을 연속으로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올려놓으며 '팝의 역사'를 새로 썼다.

특히 1992년에는 배우 케빈 코스트너와 함께 출연한 영화 '보디가드'로 배우로서도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7년 가수 겸 작곡가 바비 브라운과 이혼한 뒤 음주와 마약중독 등으로 나락으로 추락했다.

휴스턴은 그 후 자주 대중 앞에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 기이한 행동을 보여 구설에 올랐으며, 완벽에 가깝다는 찬사를 받았던 그의 목소리는 거친 쇳소리가 날 정도로 상한데다 제대로 고음을 내지도 못할 정도로 망가졌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재활의지를 보여 이듬해인 2010년에는 10년 만에 월드투어를 재개하며 내한 공연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재기를 위해 몸부림쳤다.

하지만, 자신이 6차례에 받았던 세계 최고 권위의 팝 음악상인 제54회 그래미상 시상식이 열리기 하루 전날 생을 마감해 이제는 '팝의 전설'로 남게 됐다. /연합뉴스

1급 시각장애인 안나푸르나 등반 도전

송경태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극한 사막 마라톤 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1급 시각장애인이 이번에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반에 도전한다. 주인공은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경태(51)씨.

송씨는 오는 25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전진기지(5천여m) 등반을 목표로 15일 출국한다.

안나푸르나는 산세가 험난한 데다 하루에도 수 차례씩 돌변하는 기상과 수시로 눈사태가 발생해 가장 오르기 어려운 봉우리로 꼽힌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고개를 젓는데도 꿈이 있기에 도전한다는 송씨는 "나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항상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서 "고통이 클수록 도전의 의미가 크고 성취감도 느끼게 된다"고 등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등반을 위해 매일같이 30분 이상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 하체근력 강화훈련 등 기초체력 훈련을 해 왔다. 또 주 1회 1천m 이상의 산을 등반하고 달리기 훈련을 병행하는 등 최고의 컨디션으로 등반에 임한다는 각오다.

그는 한국산악회 전북지부 구조대장 등 2명과 함께 극한에 도전할 계획이다.

송씨는 2005년 사하라사막대회를 시작으로 2007년 6월 중국 고비사막대회, 2008년 3월 칠레 아타카마사막 대회, 2008년 12월 남극대회, 2009년 5월 나미브사막대회를 모두 완주해 '극한 사막 마라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뒤 2010년 중국 타클라마칸 사막 마라톤대회에서 7구간 100㎞를 종주했다.

1982년 군 복무 중 수류탄 폭발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고자 사회복지학으로 전공을 바꿔 대학에 다시 들어갔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점자 주간지 기자로 일하던 그는 2000년 전주에 시각장애인 도서관을 열고 점자판 전국여행 가이드북, 아동문학 전집, 촉각점자 동화전집 등을 발간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에 힘쓰고 있다.

송씨는 "장애인으로서 겪는 일상의 어려움에도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또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을 얻는다"며 "앞으로도 북극과 아마존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등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광주·전남기자協 사회공헌 공동캠페인 협약

교통안전공단 호남본부(본부장 김완섭)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홍일표)는 최근 광주전남기자협회(협회장 정영팔), 밝은안과21병원(대표원장 윤길중)과 함께 '제2회 사회공헌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가졌다.

밝은안과21병원에서 열린 이번 공동 캠페인 협약식은 참여한 각 기관들이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1년간 교통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추천을 받아 광주전남기자협회에서 밝은안과21병원에 의뢰, 안질환 환자들을 수술하게 되며 병원 측은 수술비 및 급여신청을 하지 않는 전액 무료로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 제1회 캠페인에서는 총 30여명이 전액 밝은안과21병원의 부담으로 무료수술 혜택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사

◆중소기업청

◇국장급 전보 ▲기술혁신국장 양봉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이의준

◆광양시

◇4급 전보 ▲ 총무국장 고재구

◇5급 전보 ▲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정모 ▲정보화담당관 곽승찬 ▲ 봉강면장 박철승

◆구례군

◇ 5급 승진(교육대상) ▲친환경농정과 김수곤 ▲농업기술센터 박노진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주석풍(전국한자교육지도위원)·윤승자씨 장남 민국(가원 주인)군 김희중·고혜숙씨 차녀 혜영양=19일(일) 낮 12시 꿈의궁전 웨딩홀 5층 그랜드볼룸홀.

동창·동문회

▲조선대학교 조우회(회장 민경채) 신년하례 교양강좌=16일(목) 오후 6시 오륙도 식당 062-227-9850.

종친회

▲전주리씨 광주전남 이화회(회장 리승봉) 월례회=14일(화) 오전 11시 이화회관(동구 대인동) 062-225-5631, 5636.

▲파평 윤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윤승혁) 정기총회=16일(목) 오전 10시 30분 프라도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010-3618-6296.

알림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모집

▲2012학년도 광주노인지도자대학 26기생=심신이 건강하고 수업에 지장없는 65세 이상 남녀 선착순 60명 모집(무료). 29일(월)까지 입학원서·증명사진·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사단법인 대안노인회 광주시연합회 062-652-7374.

▲퀸즈공예전문학원=각종 도자기, 컵, 접시, 공기그릇, 대접, 핸드페인팅, 포셀린페인팅, 세라믹페인팅, 포크아트. 체험학습, 취미반, 창업반, 전문가 과정 수시모집. 062-251-5559, 010-2665-6440.

▲수지침 전문봉사단 수강생=모집기한은 16일(목)까지, 교육이수 후 전문봉사단에서 활동 가능 자(15명) 선착순 모집. 동구자원봉사센터(동구청 보건소 2층) 062-228-1365.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안쪽 관리사무소옆 062-512-5788, 062-262-1542.

▲축구회원=추구를 통해서 친목도 도모하고 활기찬 여가운동을 하고자하는 20~50대 축구회원을 모집, 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인조구장 010-9604-1681(신찬수).

▲문화 축구단회원=북구 문화초등학교 매일 아침 7시 20분 010-8542-3366(이성희).

▲한국노후생애 대안학교 4기 학생=50세 이상 중·장년 퇴직 후 40년을 건강하고 보람있는 생애를 유지하며 자기계발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생애준비. 선착순 30명, 원서접수는 9일(월)~2월 15일(수) 오후 5시까지, 2월 24일(금) 합격자 개별통지 062-223-1357.

▲이화숲유치원=친환경고급자재 시공(편백나무 교실, 강당, 요리실습실, 사계절 수영장) 5~7세 유아 수시모집. 진월동 리채 3차 아파트 옆 062-367-0851~3.

부음

▲지 빈씨 별세 신안식(신안식 산부인과 원장)·전식(전 고합그룹 홍보이사·한국품질관리기술사회 이사)·순식(린나이코리아 목포유달대리점 대표)씨 모친상 윤영현(전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장)·김상권(지식경제부 장흥우체국장)씨 빙모상=발인 13일(월) 고흥군 고흥종합병원 3호실 061-830-3300.

▲강경성씨 별세 태욱·중상·인숙·인선·인경씨 부친상=발인 13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8분향소 062-231-890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임미례 님(여/85세)
孫子 : 최명규, 승진
• 호실102호 • 발인:2월 13일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86

故유작지 님(남/82세)
子/子婦 : 유혜옥 / 사천주
女/壻 : 유혜민 / 양소례 혜영 / 한충강
• 호실401호 • 발인:2월 13일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83

故오종남 님(남/62세)
子/子婦 : 오광식 / 김 샘
女/壻 : 오명화 / 송기봉 명란 / 박상현영화 /
• 호실402호 • 발인:2월 13일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14

故강성환 님(남/71세)
子/子婦 : 강민덕 / 임숙희
혁진 / 이현정
• 호실101호 • 발인:2월 13일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86

故정연심 님(여/85세)
子/子婦 : 순연 / 전명심, 인석 / 김예순, 동석 / 장옥순, 원칠 / 강광례, 원옥 / 최옥진
女/壻 : 김순예, 도림, 순매
• 특실 : 201호 • 발인:2월 13일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85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